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남경기노회 가족으로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홈페이지 정회원전용 제 9 번 글” 게시자 대유평교회 나종춘 목사입니다.

여러가지 형편상 홈페이지 게시글과 더불어 인쇄물로 소명의 글을 노회원들께 보내드리며 저의 신상에 관한 일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굳이 이렇게 글을 보내드리며 저의 신상을 마무리 하는 이유를 추가해 드리면 하나는, 남경기 노회를 설립하며 첫 날부터 자리를 지켜 왔던 소인이라 남경기노회를 “극진히 사랑했던 그저 평범한 노회원”으로서 또 하나는, 지난 20년간 노회로부터 부여받은 “남경기노회 홈페이지 관리자”로 노회를 섬겼던 약간 귀퉁이에서 쭈그려 있던 공적 직임자였기에 공개적으로 이런 마무리의 글을 보내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염치 없이 보내오니 주의 사랑으로 너그러이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문의 글로 아뢰울 때 혹 노회원들께서 공감하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판단하시는 기준에 따라서는 상반되시는 의견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판단하시는 의견도 분명히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투쟁거리로 옮겨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실명을 강조하셨던 임원회의 요청에 따라 아래의 글에도 실명을 거론하려 하오니 결코 인신공격이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홈페이지 게시글 10번 이후에 모든 글에 직함과 실명을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노회 홈페이지 정회원전용 게시판 제9번 게시글”(이하 ‘본 게시글’)에 중요한 본의는 2 가지입니다.

1. 임원회가 임시노회사 청원서류 1건당 200,000원을 납부 요구한 것에 대한 질의.

: 핵심은 “정기 및 임시 노회에서 정상적 결정 절차”를 받았는가입니다.

2. 회원 교회 치리절차를 위한 “조사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는 절차의 합법성.

: 핵심은 적어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노회의 권위로 치리하려 할 때 절차의 합법성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 상기해 드린 “본의나 본질 파악”은 뒤로하고 9번 게시글 도입부에 표현 드렸듯이 “혹 이런 글 게시자를 발본색원, 색출발굴, 비트코인 채굴하듯 정밀채굴하여 백주대낮 가로등에 높이 매달아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하리라 말씀하시옵는 남경기 고을녘 어르신들이 계실지 모르오나,”라고 했는데 본 게시글을 확인하신 임원진의 첫 반응은 예상하기는 싫었지만 “사이버 수사대 의뢰, 사법적처리” 라며 본때를 보여주자는 가로등 매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소위 세상 정치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대못 행태가 우리 노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순간 실망했습니다. 남경기노회 20년 역사 속에서 최초로 임원회로부터 나온 노회구성원 사이버수사대 수사의뢰 반응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글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임원회의 반응이 나오기 전 게시자는 이미 “**실명공개의지**”를 밝힌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노회차원 징계 및 사법적 처리**”를 공개적으로 “**카톡방**”에 게시하는 강력한 의지? 를 보여 주셨습니다. 마음에 들던 안들던 노회 소속 구성원을 징계하는 중차대한 조치를 몇 글자 작성하여 마치 동네 현수막 걸어 놓듯이 하는 모습을 보니 노회원을 정말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있는 것인가? 그저 정치적인 부산물쯤으로만 여겨지는 느낌을 벗어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 이 글을 게시 할 때 본인은 “평범한 노회원”으로서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노회와 노회원의 유익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으로만 접근했습니다.

* 본 게시자는 적어도 이런 글을 올릴 때, 순진무구한 생각에 적어도 임원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답글의 형태로 “아.. 회원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울라불라…울라불라…^^ “ 노회원의 궁금증에 대한 임원회의 답변을 기대하였고 제가 오해하고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서 해결의 말씀을 주셔서 결

국 모든 노회원들에게도 “명확하고 투명한” 그리고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공정과 정의”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토록 목청껏 외치는 “은혜 가운데 마무리” 되어졌을 것을 소위 정치생태의 순기능이 아니라 어두운 기능으로만 접근하셨음에 우리가 놓친 것은 “**노회와 노회원의 유익**”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노회인터넷위원회 위원장직과 노회홈페이지 관리자직을 사임하겠습니다.**”

* 서기 최본우 목사님께서 “노회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라는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일반 평 노회원이기에 앞서, 노회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임원회나 전 노회원들 앞에서 공정한 위치를 지켜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말아야 할 관리자의 덕목을 잊어버렸다고 판단하여 이 글을 올려 드리는 오늘부로 “**노회인터넷위원장직과 홈페이지 관리자직을 사임**” 합니다.

1. 노회 임원회에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 (1) 공교롭게도 노회 홈페이지의 웹호스팅 만료일이 7월 10일이서 홈페이지 존속 유무를 노회 정회원께 긴급 질의 취합하여 결정 및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존속시키기로 결정하신다면 “홈페이지 전문 제작, 유지 및 관리 프로그램인 ‘워드프레스’라는 전용 인터넷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는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래의 글은 게시글에 대한 전반적인 저의 고리타분하게 들릴 신상발언이며 앞으로 진행될 임원회를 통한 징계 및 사법처리 절차에 대한 공개 소명자료이기도 합니다.

1. 과거 이야기 하나 짚고 가려 합니다.(공치사가 아님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 중경기노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제가 전도사 시절 “중경기 노회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당시 지금의 구글 검색과 같은 절대강자는 “야후”였습니다. 야후 검색창에서 “노회, 또는 노회홈페이지”라고 검색하면 “**여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중경기노회 홈페이지입니다.**” 하나만 검색되던 **전국 최초의 노회홈페이지였습니다.** 그러나 노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 결국 분립하여 “남경기노회가 태동”하였습니다. 당시 중경기노회로부터 “**목사면직 1명, 목사제명 12명**”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면직 1인**”이 바로 저입니다. 면직 받은 이유는 당시 홈페이지에 지금은 원로로 계시는 “서*도 목사님에 대한 인신공격글” 2건에 대하여 게시자를 밝히라고 어르신께서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새파란 꼬맹이 목사인 저를 당회장실로 부르셔서 직접 요구하셨습니다. 저의 대답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게시자 신원은 못 밝힙니다.**”였습니다. 그 벌로 목사로서 최고의 징계를 받았죠. 2분이 누구인지 20년 만에 비밀해제해 드릴까요? 최근의 직전 노회장님과 오래전 노회장하신 2분이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공치사가 아니라 제가 안고 그냥 목사면직 받아들였습니다. 종회 재판국에서 “**혐의없음**”을 받아 지금까지 왔습니다.

2. 홈페이지 관리자의 생명과 같은 수칙이 무언지 아십니까?

* 바로 “회원정보관리”입니다. 게시자 신원을 보호하려 목사면직까지 받았던 저로서는 **정에 끌려서, 관계에 끌려서, 상하조직의 압박으로 회원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전산관리자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 홈페이지에도 “**회원정보관리에 대한 수칙과 담당 관리자**”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대한민국 모든 사이트에 의무전제사항이고 이 수칙과 담당관리자 없이 발생한 분쟁 발생시 대표자 즉 우리 노회로 치자면 노회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회 홈페이지는 정보통신부에 정식으로 “**회원정보관리 사이트**”로 등록되어 있고 제가 “**정보관리자로 등록 서명**”이 되어 있어 노회 대표이신 남경기노회장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3. 회원신상정보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자리가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 “노회원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 관리자가 사사로이 유용하고 발설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년지기 친구요 동기인 서기 최본우 목사님께서 실명을 요구하셨어도, 40년 우정에 금이 가고 깨지는 일이 생겨도, 제가 고아사역을 집에서 10년 동안 할 때 유일하게 후원금을 마지막까지 보내 주시던 정말 고맙고 제 평생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갈 존경하는 노회장 정규천 목사님께서 실명을 요구하셔도 공적인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대답 드릴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합니다.”입니다. 결코 임원회를 무시하고 노회장이나 서기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상기에 말씀드렸듯이 “정보관리책임자”로서 남경기노회의 대표이신 노회장을 지켜드리는 호위무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남경기 노회원의 신상정보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 노회원이 어떤 글을 올려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신원을 제 입으로 밝히지 않는 것. 이것이 전산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여기기에 결국 40년지기 우정이 깨어졌고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홈관리자는 임원회와 보조를 맞추어야 하지 않은가?”라고 서기 최본우 목사님께서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홈페이지 관리자는 임원회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남경기 전체 노회원께 보조를 맞추는 것”이 적어도 노회홈페이지 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사실이기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저의 자세가, 태도가 잘못되었고 부적절하고 소위 괘씸죄에 걸리는 것이라면 약속드립니다. 아무런 항소 없이, 반론 없이 기꺼이 징계를 받겠습니다. 애초에 9번 게시글을 게시할 때의 초심은 누구와도 다투기 싫어하는 저의 짜질이 심약한 근성 때문에 “ID”로 글을 썼을 뿐, 앞으로도 이러한 일로 노회 안에서 노회원들과 전투적인 전사가 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마음은 그저 “노회와 노회원의 유익”이 뭔가? 만을 생각했습니다.

4. “노회록을 저에게 보여 주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 아찔하다.”

* 서기 최본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가 굳이 이렇게 공개적인 지면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굳이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지면을 빌어 공개적으로 저의 의견을 피력하려 함은 “1) 노회록 열람은 정회원이면 언제든지 열람 요청할 수 있다.”라는 “정노회원의 절대적권리” 와 “2) 본 홈페이지 관리자는 2002년 10월 7일 제 3 회 안양평안교회에서 개최한 공노회에서 ‘노회인터넷 정보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위원장”직을 임명받아 ‘노회록/결의서 및 노회관련 제반자료들을 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게시하고 관리하는 홈페이지 관리자의 직무”를 받았기에 노회록 열람을 요청하였던 바 이것을 정치적인 술수를 펼치지 위한 수단으로 판단하셨던 것은 잘못된 판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 3회 정기노회시 홈페이지 운영비를 상회비로 대치, 책정해 주시는 노회로부터 배려까지 받았기에 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왔음을 사려 깊으신 마음으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사실 홈페이지 일년 유지비가 상회비보다 때로 훨씬 많이 사용되어지는 해가 10여차례가 넘었었지만 그저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껏 노회 20년 40회기를 거치며 노회록과 결의서를 성실하게 게시하며 노회의 유산이며 역사적 자료를 잘 관리.유지해 왔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회록을 가지고 소위 장난을 치거나 노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저 뿐아니라 노회를 설립하고 함께 지내 온 -때로는 싸우고 지지고 볶고는 했지만- 단 한 번도 어떤 노회원도 노회록을 보고 투쟁의 수단을 삼지 않은 착하디 착한, 순하다 순한 노회원들이었음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이 부분에서는 사과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제 아내가 암으로 투병할 때 러시아산 차가버섯을 건네 주시던 직전 노회장 이홍근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이뤄진 저의 그룹홈 고아사역에 틈틈이 본 교회 교우를 통해 물품 지원을 해 주셨던 직전 노회장 우기종 목사님죄송합니다. 저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이지요. 노회설립과정부터 저들과 피터지게 싸우며 여기까지 온 동지이자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마음 따스한 분들임을 제 마음에는 변함없는데 이렇게 실명을 들어 글을 게재하는 것부터 제 마음 속에 심한 갈등과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이렇게 배은망덕??의 길을 택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1) 잠언 24:6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다른 언어 번역본에 보니 “친구에게 바른 말을 해 주어라. 그것이 진짜 우정이다”라고 번역을 하였더군요. 바른 번역이 뭐냐라는 논리는 접어두고 진짜 친구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맞지 않는 조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친구에게 듣기 싫은 말을 용기있게 해 주는 친구가 본인은 순간 섭섭하고 배신감에, 실망감에 빠져 들 수는 있어도 진짜 친구가 아닐까해서 신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 “힘의 논리는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역사의 진리가 배운망덕?의 길을 택하게 했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힘의 논리” “돈의 논리” “누구 라인의 원리”라는 줄 긋기가 서서히 뿌리내리는 듯 보여 집니다. 뒤에 마지막 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말빨이 세지고, 세력이 형성되면서부터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결국은 “힘의 논리”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부패하게 됩니다. 모든 역사의 독재형국이 결국 부패했던 것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저를 물론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자칫 이렇게 말씀드림이 교만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지만 한 번쯤은 우리 모두가 숨고르기하면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경기노회만큼은 “힘의 논리가 아닌 공의와 자애의 논리”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배운망덕?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마. 마무리 하면서도 장문이라 죄송합니다.

1) 글을 게시하고 난 후 노회원들께서 보내 주신 23통의 문자 메시지와 장문의 E-mail 1건 그리고 노회주소록에 없는 무명으로 보내신 2건의 E-mail 등 을 받았습니다. 어째됐든 보내 주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문자 메시지 내용을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1. 이런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2.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라..

- E-mail의 내용을 요약하면 역시 2가지입니다.

1.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라.. 1건.
2. “노회를 분란시키려면 노회를 떠나십시오.” 1건.
3. “김종수 하수인/ 뜰마니” 1건.

2) “예… 그러지 않아도 시간의 문제이지 정년이 되서 떠나든, 조기 은퇴를 해서 떠나든 떠날 것이니 너무 심려치 말아 주세요..”라고 답신 메일을 보내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 사임이든, 조기 은퇴이든, 교회폐쇄이든 마무리 하는 청원서를 내면 적극 지지해 주시고 동의 재청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도 추가로 드렸습니다. 다음 날 다시 2분께 추가로 드릴 말씀을 작성하여 이메일을 발송했는데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 “Requested action not taken: mailbox unavailable”

이런 에러 메시지는 “메일을 보냈는데 수신자의 메일함을 찾지 못해 리턴” 된 경우이거든요. |
다시 말하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 놓고 탈퇴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 누군지 모르게 하려는 확실한 의도가 담겨 있는 공격성 메일이었죠.

* (1) tkfkdg@gmail.com (2) sarangnara99999@gmail.com

* 2 메일 주소의 공통점은 구글메일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3) 어떤 분이신지는 확인 할 길은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어쩌죠?

메일 발송자께서 제가 과거 명성을 떨쳤던 삼보컴퓨터 기술진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굳이 사이버수사대까지 의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추격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심보가 있으신 전혀 예상하

지 못하셨겠죠.. 비록 구글이 외국회사이지만 국내 IP주적은 2~3분 안이면 끝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인터넷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주소지/컴퓨터 고유 IP. 아직 Windows 7 OS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용서할게요…너무 겁먹지 마세요.. 초등학생이 해킹하다 걸린 것쯤으로 생각하고 귀엽게 봐 드릴게요.. 사실 제가 공개적인 문서로 노회원들께 이런 신상발언을 하려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메일 발송자에게 두번째 답신을 드렸던 내용은 이후 저에게 모니터링 당하지 않으시려면 대비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했는데 잔머리 쓰시느라고 메일가입탈퇴라는 아주 초등스럽고 깜찍한 방법을 사용하셨더군요.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 지면을 보고 계시다면 [컴퓨터 포맷을 하셔서 기존 IP 주소를 삭제하세요. 아니면 인터넷 통신회사를 교체하시면 IP 주소가 변경됩니다.] 이것을 알려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4) “김종수 뜰마니/ 하수인” 이라는 메일에 아래와 같은 답신글을 보내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저 김종수 하수인이고 뜰마니보다 더한 돌보미예요.. 제 1년 선배이시기도 하고, 저 보다 나아도 많으시고 얼굴에 검버섯도 피시고, 이제는 70 고개를 코 앞에 두시다 보니 기력도 딸리셔서 길 갈 때 부축해드리는 뜰마니보다는 적정 도우미로 살아요. 교회건축할 때도 동일한 건축가로 같이 교회를 건축하며 30년을 넘게 함께 오다 보니 이제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습니다. 좀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남경기노회 만들때 김종내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 아니었으면 “남경기노회” 못 만들었어요. 정말 피 터지게 싸울 때 가장 앞장 서셨던 분들이 “종”짜 돌림이신 두 어르신 목사님이셨던거 모르시죠? 저를 비롯한 다른 동지들은 때로 몸사리고 눈치보고 쭈뼛쭈뼛할 때,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신 분 많았지만 두 분 목사님께서는 정말 질풍노도 그 자체셨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최근 노회식구가 되신 노회원 가족들을 제외하고 지금 원로급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위시하여 김종내 목사님께 도움 안 받으신 노회원들보다 도움 받으신 노회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에 추가해 드리면 김종내 어르신 목사님과는 비교할 순 없지만 김종수 목사님의 도움을 직,간접으로 받으신 목사님들께서도 제가 알기로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도움 받으신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은 김종수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 **같은?? 성격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얼마나 면박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표현하셨듯이 저는 김종수의 뜰마니가 아니라 제가 후배지만 어떤때는 “회초리 들고 말로 치는 사감”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김종수 목사님과는 중경기노회부터 같은 시찰에 몸 담고 노회 만들기 위해 함께 피터지게 싸우며 같이 온 동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깝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가깝지 않은게 더 이상하죠.. 그 분의 성품과 성격상 “쌍욕”도 잘 내뱉으시고, 아주 많이 “과격”하시고, 불의를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폭발”하는 그 성품 때문에 우리 노회원들께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히실 때가 참 많으십니다. 그러니 저라도 그분 곁에서 “야당”이 되어 드려야죠. 저는 김종수 목사님의 성향이나 성격과는 정 반대여서 “노회원들 앞에 나서기 쭈볐하고, 노회에 참석해도 입다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물 인가보다, 불 인가보다하니 자신 편을 들어 역성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실망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제가 “김종수의 뜰마니”가 되어 대신 나팔을 불어 주고 역성을 들어 주었다고 비판적인 말씀을 주신 것은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처사이십니다.

메일을 보내신 목사!님!

제가 2009년~2010년도 부노회장으로 2회기 연임하면서도 노회장 직분을 고사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차례 요청을 해주셨지만 능력있는 목사님께서 하시라고 고사했습니다. 저는 정치적 성향이 못되서 노회장으로서 노회와 노회원들에게 유익한 인물이 못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뜰마니가 되서 정치하라 등 떠밀어도, 대신 글을 써주고 죽창가 불러 달라고 해도 제가 너무 소심해서 그런거 못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글을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렸는지 아십니까?

“노회원에게 여비”를 제공했다는 “선한 명분”이었지만 정상적인 노회 결의 없이 “돈을 받고 청원서 처리”라는 굴레를 벗어 날 수 없기에 자칫 “돈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노회가 되지 않을까?” 감투는 결코 아니지만 “노회 개척 노회원”으로서 염려가 되어 말씀드렸고, 아울러 어렵게 세워진 노회 안에 소속된 교회를 치리하고 조사처리

하는 과정과 진행은 심사숙고, 조심스럽게 노회의 권위를 집행해야 하는데 청원서류부터 정상적인 소원이 아닌 것을 보고 두리뭉실 지나가면 나중에 혹 대상 교회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펼쳐지면 교회가 무너짐에 침묵하고 방관자로 있었던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관련되신 목사님들과 저와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하지만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노회에서 제가 잘려나가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공개적 질문을 드리는 발버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는 홈페이지 잘 관리하고, 만들어 놓은 “정기노회 순서지” 양식 잘 교정해서 좀 더 편하게 노회원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 나가자! 목소리 내실 분 내시고, 투쟁하실 분 하시고, 그저 저는 김종수 목사님을 아무도 모르는 뒷골목에 모시고 가서 뒤에서 혼내드리는 재미로 제 목회 마무리하자.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김종내 어르신 목사님을 우리 아드님 되시는 김구 목사님을 향하여 “김종내 뜰마니/하수인”이라고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안계십니다. 왜냐하면 김구 목사님께서 머리카락이 수없이 가출?하고, 수 많은 속 앓이하시며 부친 되시는 어르신 김종내 목사님 곁에서 신실한 돌보미로 계셨기 때문에 김종내 목사님을 통해서 남경기노회가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홈페이지 노회록 제 1회부터 초장 부분을 보시면 그 어르신이 노회록을 얼마나 꼼꼼히 기록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김구 목사님께서 돌보미 역할을 잘 해주신 열매이고 역사입니다.

“같은 시찰에 있으면 좀 더 친해지고….” “같은 동기이면 좀 더 친해지고….” “나이나 성격이 비슷하면 좀 더 친해지고….” “같이 골프치면 좀 더 친해지고….” “같은 임원이면 좀 더 친해지고….” “같이 노회에 가입하시면 기존 노회원과는 서먹하니 좀 더 친해지고….” “같은 출생지면 좀 더 친해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 노회 안에 보여지고 있는 자연스런 모습 아닌가요?. 그게 나쁜가요? 아니요! 자극히 정상입니다. 그게 편가르기인가요? 아니요! 저 회원은 누구 라인이고 저 회원은 누구 계보라고 두부 자르듯 누가 결정하나요. 제가 김종수 뜰마니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는 한 쪽 눈을 감고 살아 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두 눈으로 보아야 입체감으로 보이고, 공간감을 느끼고, 멀리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친해지는 것과 뜰마니/ 하수인의 차이는 두 눈으로 보셔야 해결됩니다. -끝-

5) 모 정당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모 정당에는 "2030청년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입안의 기초를 세우는 신설조직이죠. 그런데 금년 초, 초선의원 몇 명이 정당 지도부에 신랄한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용기있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부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그들을 꾸짖고 훈계하며 초선이 정치에 대해 뭘 안다고? 책임하고 더 나아가 외곽조직인 "친MOON" 조직원들이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몇 일 만에 사과하고 물러서는 촌극이 벌어졌던 것을 아시지요? 이 후 초선청년?의원들은 쭈구리 밤송이가 되어 이후 활동을 멈췄습니다.

모 정당 이야기 하나 더 하지요.

얼마전 모 정당의 당 대표로 국회의원 경력이 무관한 36세 청년이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험한 지역구에 강제로 내몰려 배정되어 낙선한 청년당원들이 이제는 30대 당대표를 보좌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당원 모두에게 마이크를 제한 없이 들이대며 소통의 장이 펼쳐지고 있답니다.

정당을 평가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정치는 생물이라 맘 끌리는대로 또 변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노회홈페이지 관리자에서도 물러 났으니 이제는 노회에서 더 이상 꼬대질 안하고
얼마 안 있어 노회를 떠날 때가 되면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대유평교회 羅鍾春 牧師 拜上.]